# 정조공파종회 보학강좌 및 장학금 수여

권기룡 회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조공파종회(회장 권기룡)는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 안동시 동부동 광석빌딩 5층 사무실에서 파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과 보학강좌를 개최했다.

권혁조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기룡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11시 30분부터 보학강좌에 들어가 강사는 권영일 씨(경산종친회장. 前 초등교장)로 안동권씨득성유래, 사시, 15파원류도, 태사묘 유래, 능동묘역 해설, 능동재사, 아시조단소, 정조공파명변경등기, 정조공파 내분계 등에 "차도"를 만들어 설명해 수강자들로부터 열띤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혁세 기자〉

# 울산종친회 능동양소 참배

울산종친회(회장 권오영)는 5월 22일 남녀족친 94여명이 관광버스 편으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에 있는 능동양소에서 주, 과, 포를 진설하고 권오영 회장의 헌작으로 함께 참배하였으며 이날 권순갑 대종원 사무부총장이 안동권씨 득성유래 및 해석문가 "敬(경)" 字 등을 선물했다.

〈권혁세 기자〉

#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편투표 또는 선상(船上) 투표입니다. 순회투표소 설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권영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3일 기자와 만나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희망을 이렇게 전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4일~18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12회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열였다.

권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참정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11월 모의투표에서 일본 동포의 투표율이 낮으면 재외동포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편투표를 하는 이탈리아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40%에 이른다며 우편투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2011. 6. 14. 김영식 기자 인용〉

# 의성종친회 능동양소 참배

의성종친회가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성종치회(회장 권오열)은 7월 13일 고문, 회장단, 족친 등 48여명이 관광버스 편으로 안동 시조묘소와 아시조 단소를 참배했다.

이어 울진 후포읍에서 오찬을 하고 봉화 닭실마을에 충재유물관, 청암정, 종택을 두루 탐방했으며 안동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종친회의 단합과 향후 발전을 위해 토론하였다.

이날 권세목 고문(문소관광 대표)이 차량을 지원했으며 권영섭 고문이 종친회 기금으로 100만원을 협찬했다.

〈권오열 회장〉

# 능곡회 제25대 정기총회

## 새 회장에 권기덕 씨 선출

능곡회 정총에서 신임회장 권기덕 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능곡회는 지난 6월 28일 오후 7시, 안동 광석동 천하회 식당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영훈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영국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이어 결산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기덕 씨(종로학원장, 법학박사)가 선출되어 신임 인사가 있었으며 사무국장의 신임회장단 발표로 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산회했다.

〈권혁세 기자〉

# 권혁 이병의 군인정신 훌륭했다

인천 강화도 해병부대에서 4일 발생한 총기사건에서 입대 3개월을 갓 지난 권혁 이병이 발휘한 군인정신 덕에 더 큰 희생을 막았다.

총소리를 듣고 잠이 깬 권 이병은 김모 상병이 자신을 조준하자 총부리를 붙잡고 생활관 밖으로 밀어냈다.

뜨거운 총열을 쥐고 옥신각신하느라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다리에 3발의 총탄을 맞았지만 끝까지 버티며 밀어붙였다. 권 이병의 완강한 저지에 당황한 김 상병은 총기를 떨어뜨리고 도주했다.

권 이병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동료들과 출입문을 잠그고 침대를 끌어다 막았다. 김 상병은 이때까지 12~13발을 발사했고 훔친 실탄은 75발이었다.

권 이병의 저항이 없었다면 남아있는 총알로 더 끔직한 인명 피해를 낳았을 수도 있다.

권 이병은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훈련이 혹독한 해병대를 지원한 '팔각모 용사'의 기개를 보여줬다. 권 이병처럼 책임감과 담력. 기민성을 갖춘 군인을 전군(全軍)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권 이병. "아빠, 엄마, 20년 동안 건강히 키워주셔서 이제 해병대로 입대하려 합니다. 주신 사랑에 비하여 1000만 분의 1도 안되겠지만 제대하고 나면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입대일이었던 지난 3월 21일 새벽. 권혁(20) 이병이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남긴 글이다. 그는 이 글을 쓰고 11시간쯤 뒤인 같은 날 오후 2시 경북 포항의 해병대 훈련소에 1138기로 입소했다.

권 이병은 4일 강화도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사고 당시 가해자인 김모(19) 상병이 쏜 총알 세 발을 몸으로 막아 인명 피해를 줄였다.

권 이병은 다이어리에 남긴 글에서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속 많이 썩힌 것 알고 있다"며 사랑한다는 표현 한 번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고 썼다.

글은 고등학교 1학년인 동생 권율(16)군에게로 이어졌다.

권 이병은 "너에게 용돈 쥐어주면서 다독여줄 수 있는 형이 못 돼 많이 힘들었다. 욕하고 때리고 자랑할 만한 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들 때면 날 찾는 모습에서 네 형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썼다.

권 이병의 부상 소식을 듣고 미니홈피를 찾은 네티즌들은 "입대를 앞두고 마음이 복잡한 남자가 쓴 전형적인 글이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고 답글을 달았다.

키 1m78cm에 통통한 체형이었던 권 이병은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해 동국대 전산원 영화영상학부에 입학했다.

교수와 주변 학생들은 권 이병을 "말이 없고 눈 웃음이 많았던 학생"이라고 기억했다.

지난 해 가을 열린 정기공연에선 술에 취한 사내 역할을 맡았다.

당시 그는 "연기에 살고 연기에 죽고 싶다"고 했다.

해병대를 지원한 이유도 연기를 위해서였다. 복잡한 감정을 표현해 내려면 해병대와 같은 극한의 경험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취미는 여느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사진 찍기였다.

그의 미니홈피에 올라온 사진 중에는 유독 친구들을 담은 사진이 많았다.

권 이병은 5일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다리에 박힌 총알을 빼내는 수술이다.

동생은 "형이 아픈 건 마음 아프지만 형이 원해서 해병대에 간 것이니만큼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따.

〈중앙일보. 2011. 7. 6. 16면 이보배 기자 인용〉

## 지역단신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81)이 9월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 대학원에 입학한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중앙공무원연수원 초청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국장급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 보수의 책임과 진보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22일 풍산읍 안동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무소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를 격려한 뒤 도시가스의 LNG 대체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권택기 국회의원은 지난 17~19일 3일간 어린이대공원 후문 입구에서 하동군 명품 농특산물 홍보 특판전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했다.

△권영규 서울시행정부시장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독일 본에서 개최된 2011년 ICLEI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신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울산동구종친회(회장 권혁성)는 5월 15일 족친 20여명이 관광버스편으로 경남 고성의 하일면 동화마을에서 조개줍기, 공룡발자국 관람 등으로 야유회를 가졌다. <권응목>

△능곡회(회장 권영국)는 4월 21일 오후 7시 안동시 정하동 완정갈비회관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의 월례회를 가졌다.

△봉화친목회(회장 권정길)는 4월 28일 오전 11시. 봉화읍 도촌 송어양식장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월례회를 가졌다. <권혁세 기자>

△여주청년회(권순경)는 7월 2일 여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부부동반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자랑 및 족구를 하며 하계연찬회를 가졌다.

<총무 권오옥>

△權春木 씨(동정공파, 33世, (전)농지계량조합전무)가 최근 성균관유도총본부(경북본부 진보지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譯抄 陵洞實記

## 역초 능동실기

〈지난호에 이어〉

### 太師廟重建記事「後孫 權行可 撰」

재상(宰相) 권반(權盼)은 우리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의 24세손(世孫)이다. 만력(萬曆) 41년(서기 1613년) 6월에 경상감사(慶尙監司)로 내려와서 정무(政務)의 여가에 태사묘(太師廟)를 참배하고, 뜰과 섬돌이 낮고 물이 넘치며 마룻대와 추녀가 기울어지려 함을 보고 경주(慶州) 부윤(府尹) 권태일(權泰一)과 향내(鄕內)에 사는 종인(宗人)들과 상의하여 중건공사(重建工事)를 시작할 새, 행가(行可)와 향좌수(鄕座首) 권오(權晤)로 도감(都監)을 삼고 무교(武敎) 권호(權皡)와 주부(主簿) 권사도(權思道)로 감역(監役)을 삼고 유사(有司)는 묘유사(廟有司) 권극홍(權克弘)으로 겸하게 하여 공인(工人)들에게 음식을 공급케 하고 기구(器具)는 모두 순상(巡相)이 제공하고 또 부윤으로 하여금 내외(內外) 자손 중 본도(本道) 내에 수령(守令)으로 현임(現任)한 자에게 통고하여 재물을 수합(收合)하여 보조케 하였는데, 수령으로는 본부부사(本府府使) 이순경(李順慶), 인동부사(仁同府使) 권경(權璟), 영해부사(寧海府使) 이순(李淳), 흥해군수(興海郡守) 금변(琴忭), 함안군수(咸安郡守) 엄황(嚴幌), 영천군수(榮川郡守) 이사손(李士遜), 거제현령(巨濟縣令) 황정열(黃廷說), 영덕현령(盈德縣令) 한여옥(韓汝玉), 의성현령(義城縣令) 이사수(李士修), 삼가현감(三嘉縣監) 윤정현(尹廷賢), 연일현감(延日縣監) 조인(趙訒), 단성현감(丹城縣監) 최정호(崔挺豪), 사근찰방(沙斤察訪) 김영석(金英石)과 병사(兵使) 윤선정(尹先正)이 참여하였다. 혹은 면포(綿布)도 보내고 혹은 해산물도 보내왔으며 본부(本府)와 근읍(近邑)에 사는 자손들도 모두 힘이 미치는 대로 미곡(米穀)과 면포를 제공하였다. 농사의 여가를 기다려 7월 7일에 착수하여 삼태사(三太師) 위판(位版)을 무학당(武學堂) 서쪽 재사(齋舍)에 이안(移安)하고 고유(告由)할새 좌랑(佐郞) 권위(權暐)가 헌관(獻官)이 되고 생원(生員) 권강(權杠)이 축문(祝文)을 읽고 권굉(權宏) 권양(權暘) 권경생(權慶生) 권응 권춘혜(權春蕙) 권영수(權英秀) 권사진(權思進) 권중술(權重述) 권사괄(權思适) 권극재(權克載) 권중정(權中正)이 각각 집사(執事)가 되니 제사에 참석한 자손이 또한 이십여인(二十餘人)이었다. 동월(同月) 10日에 구묘(舊廟)를 헐고 공사에 착수하니 목수(木手)가 18人, 석공(石工)이 2人, 와장(瓦匠)이 3人, 철공(鐵工)이 2人이었다. 역군(役軍)인즉 군내(郡內)에 사는 자손들이 혹은 노복(奴僕)을 보내고 혹은 몸소 취역(就役)하여 수리(首吏) 장자호(張自豪)와 김신개(金信凱)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케 하고 옛터를 따라 돌을 쌓고 초석(礎石)을 놓으니 높이가 길이 넘었다. 유사(有司)를 파견하여 재료를 수집하니 기와는 양장(羊腸-꼬불꼬불한 山골)에서 굽고 돌은 연원(燕院-제비원)에서 캐어 독촉의 번거로움 없이 수륙(水陸)으로 운송하여 순일(旬日) 안에 모두 도착하니, 7월 20일에는 입주(立柱)하고 22일에는 상량(上樑)하여 곧 기와를 덮고 흙을 올려 단청(丹靑)을 시작하니 화공(畵工) 6명은 다 승려(僧侶)였다. 10월 初 10일에 준공하니 묘우(廟宇)는 오가(五架)인데 통하여 삼간(三間)으로 하고 양쪽에 광창(光窓)을 달고 중간에 정문(正門)과 동서에 협문(夾門)을 두고 「태사묘(太師廟)」란 큰 자액(字額)을 거니 자손 권복흥(權復興)의 글씨다. 앞에 신문삼간(神門三間)을 세우고 문 동쪽에 또 간문(間門)을 두니 보통 출입하는 문이다. 신주삼간(神廚三間)은 한 간(間)이 제기고(祭器庫)요, 비어 있는 두 간은 제수(祭需)를 비치(備置)하게 하고 재실(齋室) 18간은 동서에 방실(房室)을 분설(分設)하였으니, 옛 제도를 조금 변경하여 벽토(壁土)를 고쳐 단청을 올리고 행랑오간(行廊午間)은 셋째 간에 대문을 달고 문 밖에는 하마비(下馬碑)를 세웠으니 「삼태사(三太師) 내외자손(內外子孫)으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하마(下馬)하라」는 글자를 새겼고 보상고(寶上庫)와 유사청(有司廳)은 모두 예전 제도대로 하였다. 10월 23일에 환안(還安)하기로 택일(擇日)하고

〈다음호에 계속〉


## 제23회 전국체전 참가를 위한 서울 청·장년회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의

제23회 안동권씨청년회 전국체전을 9월 25일(일요일) 영천군민운동장에서 개최하오니 서울청장년회 회원 여러분들의 참가와 8월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의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서울 청·장년회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의 안내**

■ 일시 : 2011년 8월 4일(목) 오후 7시
■ 장소 : 고기풍년 3호점(010-4562-6644)
(1호선 제기역 ⑥번출구 좌측골목 20m지점)

**전국체전 참가안내**

■ 출발일시 : 2011년 9월 25일(일요일) 오전 6시(정각)
■ 집합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도로변
(5호선 광화문역 ⑧번출구, 한국관광)

**연락처**
회장 권혁창 : (02)2640-6565(사) 010-3680-5057 / 총무 권오준 : 016-261-2570

2011년 8월 1일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혁창


## 영덕종친회

| | |
|---|---|
| 회 장 | 권병윤 |
| 부 회 장 | 권성덕, 권영승, 권효준, 권오섭, 권수복, 권오화 |
| 여성부회장 | 권옥태, 권숙금 |
| 사 무 국 장 | 권신기 |
| 감 사 | 권위달, 권영해 |